

“그곳에 가면 모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전남 강진 남미륵사, 1만평 대지 가득한 불·보살님과 탑 100만 포기 철쭉도 장관...불자들 기도 소리 그치지 않아

“서원은 반드시 성취된다”



불사를 시작하며 지은 옛 대웅전.

소망의 뿌리가 깊으면 성취도 크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많이 이루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이뤄지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소망이 무엇이나 하는 차이가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품고 있으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소망은 마음에 품기만 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에 위치한 남미륵사에 가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 전국 사찰을 떠돌며 기도를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법흥스님이 23세의 나이에 품은 소망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여기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을 조성해 모시고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해 성품의 인연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에 매진했다. 물만 먹으며 하루 20시간 이상을 기도에 몰입하기도 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여 그들의 병이 낫기도 했다.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찾아와 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렇게 인연이 무르익어 가면서 스님의 기도는 스스로 세운 서원을 이루는 힘으로 나타났다.

법당이 세워지고 부처님이 모셔지기 시작하면서 남미륵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궈가기 시작했다. 1만여 평의 대지에 대웅전 만경루 산신각 등 20여 건축물이 들어섰고 해수관음, 미륵대불, 석가모니불입상 등 여러 불보살상

이 조성되어 집안을 했으며 석조5백 나한도 도랑에 가득 모셔졌다. 3층석탑과 13층 석탑 등 다양한 탑도 도랑 여기저기에 솟아 있다. 100만 포기의 철쭉을 심어 봄이면 은빛 꽃공전을 이루어 극락세계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남미륵사의 장관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목탁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전각과 탑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의 조화다. <아미타경> 등에 묘사된 극락세계의 오묘한 소리인 듯한 묘음이 항상 연주되고 있는 것이다.

남미륵사의 25년 불사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지극한 서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륵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과 서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도 두텁다.

남미륵사는 이제 도랑 가꾸기 불사의 정점에 서 있다. 높이 25미터의 청동 좌불(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불사지만 지역민들과 불자들은 이 역시 주지 법흥 스님의 원력과 서원으로 반듯하게 이뤄질 것을 것으로 믿고 있다.

양로원·납골당·장학회로 큰 회향 발원



청동좌불 불사현장.

그 다음 법흥 스님의 계획은 중생에게로 향한 회향이다. 양로원과 납골당을 지어 경로사상 고취와 영가들의 인락처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것이다. 또 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을 돕고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하여 나라의 동량

기르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것이 법흥 스님의 또 다른 서원이다.

남미륵사. 중생들의 소망이 끊어 없기에 연연 있는 중생들에게 극락이 되길 바라는 일념으로 일궈 온 도량 남미륵사는 이제 국토의 남단에서 반드시 한 번 둘러보고 싶은 절로 이름을 높여 가고 있다.

남미륵사,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절입니다



▲일주문과 500나한상.



▲용왕전 정면.



▼해수관음상.

▶석굴법당.



▼반야심경이 새겨진 석교.

● 법회 안내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3일
지장제일: 매월 음력 18일
관음제일: 매월 음력 24일
(전화) 061-433-6460

● 남미륵사 가는길

서울고속버스 터미널→강진 터미널→군동면 풍동마을 시내버스 이용
장흥-해남간
18번 지방도로 이용 풍동마을 진입

● 남미륵사 주소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580번지
세계불교미륵대종 남미륵사
주지 법흥

